

# 실태조사로 복지사각지대 예방

## 익산시, 중증장애인·의사 무능력인 가구 대상 조사 진행

익산시가 중증장애인 등에 대한 생활실태 조사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예방한다.

시는 지난달 3일부터 4주간 기초생계급여 대상자 중 1인 가구로 중증 장애가 있거나 의사 무능력인 가구에 대한 급여관리의 적정성 및 생활실태를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총 1,117가구 중 97.8%인 1,098가구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96.4%가 급여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관리 부적정 세대는 38가구로 관리 방법 등 주이나 시정을 권고하였으며, 급여의 횡령 또는 남용 등의 사례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미거주, 장기출타 등으로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가구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지를 파악하는 등 지속적으로 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의사능력이 미약한 정신장애인, 치매 노인 등이 스스로 급여를 관리·사용할 능

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민법상 후견인을 지정하여 급여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후견인 지정이 어려울 시 급여관리자를 지정하여 급여를 대신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시는 급여관리자로 지정된 자에 대해서 타인에 의한 수급권 침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매년 연 2회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강태순 복지국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현장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급여관리자에 대한 교육과 중증 장애 및 의사 무능력인 가구에 대한 인권 제고의 필요성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는 무단투기 없는 쾌적한 농촌 환경을 조성한다.

##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

### 익산시,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운영

익산시는 무단투기 없는 쾌적한 농촌 환경을 조성한다.

시는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취약지역 7곳에 거점배출시설을 설치해 생활폐기물을 분리·배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거점배출시설 운영을 통해 급증하는 무단투기로 인해 도시 미관 저해와 상시 민원 발생에 따른 행정력 낭비의 이종고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거점배출시설은 쓰레기 배출이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설치해 생활 쓰레기, 플라스틱류, 종이류 등의 재활용품을 적정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지붕이 설치되어 우천 시 쓰레기가 짓고 악취가 나는 단점을 보완하고 CCTV설치로 무단투기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센서등이 설치돼 시간의 제약 없이 주민들이 올바른 방법으로 분리배출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김재준 청소지원과장은 "이번 거점배출시설 설치로 무단투기 없는 쾌적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주민들의 편의 증진과 올바른 분리배출을 통한 재활용품 수거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익산=이재춘 기자

## 군산시간여행마을 체류형 야간관광 활성화

### 군산시·편발리지 협동조합 업무협약 체결

군산시가 원도심권의 체류형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산업 진흥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시는 8일 군산시간여행마을의 체류형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편발리지 협동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황철호 군산시 부시장과 편발리지 협동조합 김은주 이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밤이 되면 한적해지는 원도심권의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한 체류형 관광역량 유치 제고 등 관광산업 진흥에 대한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시는 △편발리지 협동조합 소속 게스트하우스 홍보, △편발리지 협동조합에서 자체적으로 관광상품을 개발한 야간 프로그램 소개, △관광지도 및 군산관광 홍보 물품 등을 지원한다.

편발리지 협동조합은 △야간관광 이벤트 공동 추진, △게스트하우스 이용객 대상 여행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군산시가 원도심권의 체류형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산업 진흥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군산 야간관광 명소 소개 및 프로그램 홍보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황 부시장은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시간여행마을의 낮의 모습을 알고 떠난다면 '야간 경관이 멋진 신홍동 도시숲 공원, 말랭이 마을, 해망굴 초

원사전판 등 곳곳의 야간 명소를 찾아 색다른 야경을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할 거라 생각되며, 오늘 협약을 통해 그 역할을 편발리지 협동조합과 함께 할 수 있어 더욱더 뜻깊은 자리라 생각된다"고 전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 익산시, 홀로그램·주얼리 상생 방안 모색

익산시는 홀로그램과 주얼리 산업의 상생 방안으로 실감콘텐츠 산업 영역을 확대해나간다.

시는 8일 익산역 동문주차장 옆 홀로그램 체험관에서 '제1회 주얼리 비즈 파트너스 데이'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패션주얼리 공동연구 개발센터와 회원사, 홀로그램 협약 기업, 홀로그램콘텐츠서비스센터, 진

북콘텐츠융합진흥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체험관 내 홀로그램 제품 시연 및 설명, 홀로그램&주얼리 비즈니스 교류 행사로 체험관은 소통과 교감의 장으로 탈바꿈했다.

시는 홀로그램 체험관을 통해 홀로그램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기존 주얼리 산업에서는 생소했던 홀로그램 콘텐츠 소개와 상생방안 제시를 통해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

을 전망이다.

특히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식품, 섬유 등 시 대표 산업들과의 비즈니스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홀로그램을 활용한 제품 홍보 등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기존 산업과 실감콘텐츠 융합으로 산업 영역을 다양하게 확대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 콘텐츠 선도도시로 거듭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 군산시, 국민안심 공중화장실 공모 선정

군산시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추진하는 '2022 국민안심 공중화장실 구축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9,1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지난 4월부터 행정안전부의 1, 2차 컨설팅 및 최종 심사를 거쳐 전국 10개 지자체가 선정됐으며, 전라북도에서는 유일하게 군산시가 선정됐다.

국민안심 공중화장실 사업은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범죄로부터 공중화장실의 안전 확보,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에너지 절약시스템 시공,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린 화장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시는 노후 화장실 개선을 위해 소공원 및 관공지 내 화장실의 지속적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범죄 취약환경 개선을 위해 안심비상벨 및 안심거울 설치, 정기적으로 경찰서와 불법촬영 카메라 합동점검을 실시

해 왔다.

또한 관내 115개 공중화장실을 11개 권역으로 나눠 청소용역을 실시하고 항상 청결 유지와 선도적인 화장실 문화 개선 노력 등이 공모사업에 선정에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해돋이 공원 공중화장실 리모델링과 CCTV, 비상벨, 외부 안심조명 등 안전시설과 LED 전등, 카운터 센서, 감응식 세면대 등 에너지 절약시설을 설치하고 주변 환경 정비를 통해 국민안심 그린 공중화장실로 새롭게 탈바꿈 할 예정이다.

또한 해돋이 공원은 시에서 추진하는 공원 환경개선, 산책로 조성, 인근 도시 재생사업 등과 맞물려 시내 야경 명소로 부상하고 있어 이번회 추진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화장실 조성사업으로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김판곤 기자

### 지역 소식통

#### 군산시, 무더위 대비 폭염 예방사업 추진 박차

군산시가 본격적인 무더위가 다가올에 따라 여름철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각종 폭염 예방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우선 시민 접근성이 높은 폭염 저감시설을 확충할 계획으로, 현재 주요 시거리에 설치된 그늘막 92개소에서 10개소를 추가 설치한다.

또 작년 처음 도입한 스마트 그늘막 2개소를 추가 설치해 총 4개소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그간 코로나19로 운영이 중단되었던 롤링포그 3개소도 올해부터는 정상 운영 예정이다.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한 예방사업으로 경로당, 복지회관, 금융기관 등 총 449개소의 실내 무더위쉼터 중 경로당 137개소에 대해 냉방기 점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냉방기 147대의 중합분해제적 비용을 지원한다. /군산=김판곤 기자

#### 군산시, 전북도 세외수입 실적 평가 '장려' 선정

군산시는 전북도에서 주관한 '2022년(2021년 기준) 세외수입 운영실적 평가'에서 '장려'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라북도 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세외수입 징수실적, 체납액 축소 노력도, 정리보류 실적 등 8개분야 12개의 산발지표를 통해 세외수입 전반에 대해 이뤄졌다.

시 주요 성과는 2021년 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차량과태료 부과정수관리 효율화 방안'에 대한 사례발표로 '장려상'을 수상했으며, 세외수입 징수팀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상·하반기 연 2회 세외수입 특별징수 기간을 운영해 세외수입체납액 납부인내 문 발송, 고액체납자에 대한 집중 돌려, 효율적인 징수기법 모색 등을 추진했다.

김민호 시민납세과장은 "앞으로도 고의적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선 강력한 체납처분과 적극적인 행정제재를 하고, 단순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